



통권 95호

후원회소식

발행일 1999. 9. 10 / 발행인 권오현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99통일대축전 제10차 범민족대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을 위한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가 범민련 남측본부, 자통협, 전국연합 등이 함께한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주최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에서 시민, 학생 1만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그러나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으로 판문점에서 열려던 10차 범민족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 행사와 관련, 범민족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은

평화적으로 치뤄진 이 행사에서 486명을 연행, 진관스님 등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원칙도 지키지 않은채

서울대 근처에 있던 임시부, 고시생을 비롯,

집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연행,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샀다.

한편 민가협,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은

기자회견, 집회, 경찰청 항의방문 등을 갖고

8·15 연행, 구속자 전원석방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범민족대회와 관련, 사전영장이 발부된

김양우 씨 등 4명이 현재 명동성당에서

민간통일운동 보장과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농성중이다.



정부는 8월 15일, 형이 확정된 기결수 1,742명을 석방하고 7명을 감형했으며 1,112명에 대한 사면·복권과 국정농단의 권력형 비리주범 등 3명을 사면하는 등 2,864명에 대한 '광복절 54주년 경축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은 사면취지에서 '새천년을 앞두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새

약서를 썼던 7명과 준법서약을 거부하였으나 형기의 50%이상을 복역한 49명 등 56명이, 사면이라고 할 수 없는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을 뿐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확정판결을

50% 솜치에 묻힌 71살 양심수의 19년 옥고

-8·15 해방정신에도 대통령 약속도 빗겨간 광복절 사면

권오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출발을 서약하고 국내외적으로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며 온국민의 대화합 토대위에서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강조하고 인권국가 면모를 말하면서도 실제 인권침해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양심수에 대한 석방은 겨우 18%에 그쳤으며 양심적 의지와 행동 때문에 쫓기고 있는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 조치도 없었다. 더구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19년, 15년 감옥 살고 있는 손성모, 신광수 노인등 장기구금양심수가 제외되었으며 한총련 3~5기 의장등 대부분 학생들과 노동조합 간부를 비롯한 노동자들도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석방에서 제외되었다.

자유와 해방의 광복절 의미도, 대통령이 말해왔던 자유와 인권정신도 반영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져 국정농단 비리 주범을 풀어주는 정략사면에 비중을 두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 또한 피할 수 없게 했다.

8·15 사면조치에서 양심수 석방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한정되어 190여명 미결양심수는 아예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었다. 이미 준법서

받았던 731명에 대한 사면·복권과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같은 내용의 230명에 대한 사면·복권, 그리고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석방 기간이 거나 형집행정지 상태로 있던 51명에 대한 사면·복권, 그외 2명에 대한 감형조치를 한게 전부였다.

해방 54돌을 맞으면서 양심수 사면에 큰 기대를 갖게 했던 이유 가운데는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소감에서 밝힌 인권관련 발언 때문이었다. '억압, 무지, 빈곤으로부터 자유', '양심의 자유', '자유, 인권이 21세기의 중심적 가치'라는 대목들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말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의 큰 폭 사면, 수배해제도 분명히 온 세계 언론들 앞에서 말했었다. 이러한 언급에 근거하여 집권당인 국민회의에서 아예 준법서약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한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해제 조치 등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사면내용이 발표되는 8월 13일 아침 방송에서도 손성모, 신광수 노인 등 장기구금양심수와 정태홍, 정명기, 강위원 등 한총련 3~5기 의장이 석방될 것이라 했다. 양심수 가족들과 수배자 가족들은 그래도 못 미더워 세종로 종합청사 근처에서 청와

를 맞대 조건없는 석방, 수배해제 촉구 집회를 갖고 있었다.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어머니와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유병문 어머니께서 외쳤다. '청와대는 정신차리시오. 범죄자 사면이 중하요, 양심수 석방이 급하요. 대통령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면 나라일이 어찌되겠요! 그러는 가운데 광복절 경축 사면이 발표되고 사면내용이 집회장에도 전해져왔다. 두 어머니를 비롯한 양심수와 수배자 가족들은 분노로 치닫게 되었다. 조건없는 양심수 석방과 수배해제 촉구 집회는 변칙사면 규탄집회로 돌아섰다. '범죄자를 둔 부모마음은 알아주면서 양심수의 어머니 심정은 외면해도 되느냐! 가족들의 한맺힌 외침은 청와대까지 미치고 그 분노의 함성은 하늘에 사무쳤다.

8월 15일 이른 10시, 대구교도소 철창을 나선 안재구 교수(구국전위 사건), 조용병(창원대 학생) 류민희(서울시립대 학생)씨는 마중나온 100여명 환영가당에서 한결같이 손성모 선생과 정명기 한총련 4기 의장을 두고 나온 것에 마음 무거워하며 이번 사면에 분노하고 있었다. 세사람이 풀려난 대구교도소 기결감방엔 그 두사람이 남아 있었다. 겹유리로 막혀있는 면회실 저편에 고난의 연륜을 말해주는 듯, 골 깊은 주름으로 푸른 수의의 노인이 서있었다. 갈라진 조국이 하나되는 것을 염원하며 19년째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고 있는 손성모 노인이었다. 언론에서 석방대상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터였다. 지난 2·25 사면때 29년 이상 복역한 장기구금양심수가 한꺼번에 17명이 풀려났고 그래서 같은 범주의 손성모, 신광수 노인이 이번 사면에서 우선 순위가 될 것이란 말도 들었을 터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고 준법서약제가 사실상 없어진 이번 사면에서 두 분이 빠져있는 것이다. 면회를 신청한 쪽에선 개탄하고 분노했지만 서울대 재학중 의용군에 들어가 제대하고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과 졸업, 함경남도 화학

공업대학 교원(교수)이었던 유리창 너머 손성모 노인은 오히려 침착하고 의연한 모습이었다. 이날 이러한 모습은 광주교도소에 15년째 갇혀있는 71살의 신광수 노인도 같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또한 보성중학 재학중 의용군에 입대했었고, 루마니아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었던 다같이 전문지식인이었지만 '통일'이라는 과제앞에 자기 희생을 감내했다.

이들은 양심수후원회가 89년 장기구금양심수로 규정했던 마지막 남은 두사람이고 지난 2·25사면때 풀려난 우용각 노인 등 17명과 같은 범주의 확신수이며 대장염, 십이지장염, 고혈압, 위장질환을 앓고 있는 71살의 고령들이다. 만약 준법서약을 쓰지않아 사면에서 제외시켰다면 우용각 노인들에게는 물론 8·15사면에서 49명이 조건없이 석방된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29년이 못되어 제외시켰다면 인권, 자유를 말하고 인권국가를 말한 대통령의 말은 거짓일 뿐 아니라 이나라 인권정책(행형제도)의 반문명적 야만성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손성모, 신광수 노인을 조건없이 곧바로 석방하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정태홍, 정명기, 강위원을 비롯한 청년학생을 조건없이 석방하라!
범민련 등 이적규정 철회하고 범국민통일대추전과 관련 구속된 진관스님을 석방하라!
범추본 지도부에 발부된 사전영장발부를 즉각 철회하고 민간통일운동 탄압 중단하라!
부당하게 쫓기고 있는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정치수배를 조건없이 해제하라!

“엄마가 돼 가지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죠.”

유현미 · 후원회소식 편집부

먼 길이다.

이른 아침 5시 40분에 집을 나와 전철을 탄다. 고속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면 6시 50분발 광주행 버스를 탈 수 있다. 전라남도 고틀머리, 장흥 가는 직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첫차가 너무 늦게 있다. 그러니 서둘러 광주에 가서 거기서 장흥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가는 게 낫다. 광주에 도착해서 장흥행 버스에 오르면 점심 때가 지난다. 밥을 먹을 겨를이 어딴나. 꼬박 1시간 40분 걸려 장흥에 도착한다. 종종걸음으로 장흥 교도소를 찾아가 그리운 자식을 만난다. 특별 면회 신청하여 1시간여 얘기 나누고 손 잡고 얼굴 바라보고는 얼른 되돌아 나와야 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로 서울에 돌아오기가 어렵다. 갈 때는 아들 보고픈 그리움에 하나도 힘도 안 들고 설레이기만 하더니 돌아오는 길은 왜 이리 지치고 힘에 겨운지. 면회실을 돌아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왜 그리도 눈에 사무치는지. 비라도 오는 날이면 고속도로가 더 막히는 통에 새벽이 되어서야 대문에 들어선다. 너무나 긴 하루.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1997년 6월 4일, 텔레비전에 긴급 뉴스가 방영되었다. 한총련 5기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던 한양대학교에서 청년 한 사람(故 이석 씨)이 프락치로 오인 받아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학생들의 구타로 사망했다는 것. 그 청년의 신원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 그 청년을 업어다 놓고 달아난 두 학생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경찰의 모습이 보이더니 얼마 뒤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다. 순옥이가 환자를 업어다 입원시키면서 소속 학교와 학년, 학과, 이름, 집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적어 놓고 갔다며

순옥이의 행방을 묻는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아무렴. 처음엔 순옥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만 생각하고, ‘아이’가 어딘는지 알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불안한 예감에 떨게 된다. ‘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들’이 설마.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 아들 이름 ‘권순옥’이 뉴스에 나온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 중 한 사람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믿지 못할 소식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던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길고 막대한 시간을 지내온 것일까.

처음 1년여 동안, 어머니 박미준 님은 병원을 많이 들락거렸다. 자식이 ‘상해치사’ 죄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리 맘을 모질게 먹어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며 다그쳐도 몸이 계속 아팠다. 민가협 어머니들을 만나고 집회에도 참석해 보지만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버텨내질 못했다. 처음 민가협 집회에 나왔을 때 어머니들이 ‘순옥이 어머니’라며 자꾸 맨 앞에 세우는 데,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까 봐 뒷자리로 물러나고는 했다. 아들이 한 일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고 우선은 ‘상해치사’라는 죄목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무거웠다. 국가보안법에 걸려 들어간 거라면 자랑스레 큰소리라도 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던 어느 날엔가 어머니는 긴 편지를 한 통 받는다.

‘그 당시 정부나 한총련의 물지각한 일부 간부와 언론에 의하여 두 사람의 학우가 희생양이 되었다’면서 자기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자신의 가족과 변호사님이 1년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항소하자는 것을 ‘짓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죄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권순옥, 이호준

이 1심에서 5~7년의 형을 선고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한총련 간부로서 위 두 사람보다 형량을 적게 받아 풀려난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평생을 지내야 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5년형을 확정 받아 지금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한총련 간부였던 한 학생의 편지였다. 어머니는 눈물이 핑 돈다.

고집이 좀 센 거 말고는 매사에 원만하고 순한 아들. 당시 순욱이는 군 제대 후 건국대 농화학과에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휴학 전이나 복학 후에도 한총련이나 총학생회, 학과 내에서 따로 공식적인 직함 없이 그저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었다. 평범하되 성실해서 담당 교수가 대학원에 들어가 계속 공부하라고 권하고 그랬는데, 시대의 아픔이라고 해야 할까. 순욱이도 시대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겠지. 무능하고 부패한 김영삼 정부의 부정에 맞서 연일 학생들이 데모하던 시절 아난가. 아들은 한양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에 간다. 몹시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심문하는 자리에 두 시간 남짓 함께 있게 된다. 밤이 깊어 잠을 자고 있는데 "야, 이석이가 이상하다"며 동료가 깨운다. 얼른 일어나 그 동안의 사정은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겠기에 이석 씨를 들쳐 업고 병원에 입원시킨다. 얼마 안 있어 언론과 수사기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순욱이와 한총련을 연결시키려 들고, 순욱이가 평소에 얼굴조차 모르는 한총련 투쟁국장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각본을 써서 이 사건을 한총련에게도 덕적 타격을 입히는 계기로 삼는다. 성동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던 아들을 찾아가 보니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라며 충격에 났이 나가 있다...

그런 아들에게 사건 진상에 대한 한 마디 설명도 없이 반강압적으로 사건에 대한 충대를 매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지를 보낸 학생처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억울한 누명을 쓴 학우에게 사죄하는 한총련 간부도 있구나, 놀라고 고마워하며 어머니는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는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워낙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때문인지 친척 중에는 아직까지 순욱이를 오해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서운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무고하게 죽은 이석 씨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어쨌거나 우리 아들은 저렇게 살아 있지 않은가. 이석 씨 부모님을 찾아가 빌고 또 빌며 용서를 구했다. '무슨 말을 한들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죄는 뭇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다 같은 피해자 가정'이라고, '젊은 학생들이 죽고 다치는 것은 기성 세대의 잘못이고 시대의 비극이니 앞으로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너그러이 학생들의 잘못을 덮어준 이석 씨 부모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이석 씨 사건은 아직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아들이 나오면 아들 애기부터 차근차근히 들어 봐야지, 어머니는 생각한다. 그날을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다. 순욱이는 그 새 성큼 자라서 이제는 더 먼 곳까지 보는 것 같



다. 언젠가 면회 갔더니 순욱이가 그랬다.

“엄마, 더 넓은 세계를 생각하세요. 엄마 아들이 억울하긴 하지만 더 큰 일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우리 나라 통일 이루어야죠. 그리고 또...”

시련이 어머니를 강하게 단련시킨 것일까. 어머니는 순욱이 때문에 딱 한 번 울었다.

지난 봄, 25일 동안이나 단식을 한 아들 면회 갔던 날. 장갑 낀 아들 손을 만지는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도록 싸늘했다. 참지 못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

을 보이고 말았다. 그 뒤로 다신 안 운다. 엄마가 왜 가리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젠 집회 때도 가리거나 무서울 게 없다. 뒷자리로 물러나지 않고 앞에서 싸운다.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새삼스러운 얘가지만 뽐뽐 뽐뽐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며 순욱이 일에 힘써온 집안 식구들, 더없이 든든한 어머니 동지들과 후원 회원들. ‘아들 덕분에’ 이 세계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된 것도 고맙다.

사랑하는 순욱아, 곧 만나자꾸나.

순욱아 받아보아라!

너를 면회하고 온 지 벌써 20여일이 넘었구나!

금년에 더위가 유난히 일찍 와서 기세를 부리고 있는데 이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면회하고 오던 날 나는 네 아빠와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면회할 때 네 손바닥이 유난히 회고 핏기가 없이 창백해 보여서 너에 대한 걱정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더구나.

네 창백한 손바닥이 마음에 걸려서 너에게 건강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으니 걱정 마세요’라며 애써 웃음짓던 너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지난 2월에 25일 동안의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이 아닌가 걱정되어서 교도소 측에도 전화해서 진찰받게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네 편지가 없어서 매우 궁금하구나.

지난 7월 9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오는 8월 15일 사면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시국사범이나 노동, 학생운동에 관련된 구속자 등 우리 민가협에서 지난 달 16일 현재 집계한 278명을 석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며, 그동안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처벌해 온 한총련 소속 학생들도 대부분 석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아무 조건 없이 특별사면을 시켜주면 다행이지만, 전과 같이 조건을 붙여서 서약서를 쓰라고 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아라.

저번 면회 때 ‘만기 출소 한다고 해도 약 10개월 정도의 형기가 남았는데,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여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조금 일찍 석방되어 평생을 부모형제들에게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도록 하기 보다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10개월을 참고 견디겠습니다. 출소하면 그간 모아진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지난 두 번의 특사 때 검찰에서 강요하는 글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쓰지 않겠다’고 말하던 너는 참으로 장한 우리 아들 순욱이이다.

그래! 진실은 어느 때고 밝혀질 것이다. 오는 팔일오 특사에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네가 말했지만 부모된 심정으로 조금은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구나. 대통령도 양심수 출신이고 준법서약서가 얼마나 양심을 해치는 것인지 알고 계실 텐데, 정말이지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다.

엄마는 민가협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여, 오는 팔일오 특사 때 모든 양심수가 조건 없이 석방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할 테니, 너도 남은 기간 건강 조심하고 사회에 돌아오는 준비 차분히 하거라.

조만간 가족들이 면회 가겠지만, 욕심 같아선 오는 팔일오를 기해서 ‘면회’라는 말이 모든 양심수 가족의 대화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몸조심해라!

1999년 7월 15일

순욱이 엄마 씀.

아이들이 이토록 그리워하는 아빠를 아이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화춘 •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9년 8월 15일 풀려남

그간 저의 석방과 세 가족에게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은 비길 데 없이 고마운 분들께 출소인사를 다니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면이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오다 보니 모든일에 서툴기만 하여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 미르한테조차 가르침을 받는 때가 다반사라 애비 체통이 말이 아니긴 하지만 한편으론 집안에 묵석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을 하는 것도 있기에 조금은 위안도 되더군요. 아내의 말인즉 제가 집에 돌아온 날부터 변한게 있는데 복도쪽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역을 살면서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많은 일들이 마음을 해집곤 합니다.

출소 전날 밤 내내 뒤척이게 했던 많은 이유중 가장 큰 건 아이들 하나, 두메, 미르가 저를 어떻게 받아 들여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르는 두 살, 두메는 세 살, 하나는 여섯 살이 채 못되었을 때 헤어져, 같이 살던 때의 아버지를 하나만 어렵듯이 기억할 뿐, 두녀석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에 교도소에서만 만나던 아버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나 밤새 저를 뒤척이게 했던 그 근심은 한낱 기우였음이,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순간 아이들이 제 품속으로 뛰어들어올 때 알았습니다.

하나는 제뒀엔 다 컸다고 주위의 환영객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쉽사리 안기려 하지 않아 좀 아쉬웠지만 미르와 두메는 안자마자 척 앵기는게 그간 아버지를 무던히도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녀석은 학교갈 때 외에는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집안에선 저희들 시야에 저를 묶어 두려고 하고 밖에서는 제 두손을 서로 차지하려고 법석을 떨지요. 석방되던 날 두메가 즈그 어머니에게 귀속말을 하더라

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나오셔서 또 갑자기 가버리실 것 같아요 라고 말이지요.

아이들이 늘 제 곁에서 맴도는 것은 그런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득문득 가슴이 저뭉니다. 며칠 전부터 보안관찰 신고를 하라고 담당형사가 몇번이나 찾아와 밖에서 이야기를 할라치면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형사라는 것을 눈치채고 따라나와 제 곁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감시를 합

니다. 아버지를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혈기(?) 물씬 풍기는 행동들이라 어린 아이들의 그러한 말없는 시위가 애처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이제 조금은 안심을 하는 눈치라 저 또한 저으기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요.

아이들이 개학하는 날, 녀석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 아이들의 선생님을 찾아뵈었는데 하나 선생님이 하나를 어찌나 칭찬 하시는지 듣기 민망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참 좋더군요. 이 자리를 빌어 아이들을 이만큼 끈고 당당하게 키운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신 민가협 어머니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제손을 놓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 많은 아빠들, 아이들이 이토록 그리워하는 아빠들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특히 칠순이 넘으신 손성모, 신광수 선생님을 두고 먼저 나오자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나오는 것을 양심수를 만들어내는 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땅에서 말끔히 쓸어버리는 일에 매진하라는 소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땔 수가 있었습니다. 양심수후원회의 많은 회원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 저 또한 새내기 회원으로서 마음을 더하겠습니다.

그는 하나의 양희철이다

-5029, 양선생, 다시 양희철-

안일순 ·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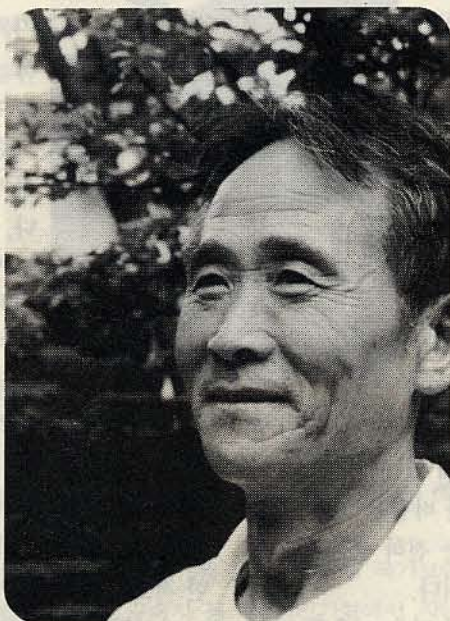
1 회철군, 참 오랜만이다./ 너와 헤어진 후 오랜 세월/침묵으로 지내야했었다.//.....내 이제 너를 만나게 되면/늙은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네 마음발을 둘러볼란다.//

37년만에 세상 밖으로 나서기 하루 전, 감옥 안의 양희철은 수인으로서의 마지막 밤이 될 99년 2월 24일, 설레임과 회한으로 밤을 꼬박 세우며 감옥 밖의 양희철에게 편지를 썼다. 65년 3월 16일 사형선고를 받고 쇠창살 안에 갇힌 양희철이 감옥 안에서 쥐를 잡아먹

으며, 엮드려 개밥을 먹을 동안, 감옥 밖에 두고온 청년 '회철군'은 대학가를 넘나들며 야학을 하고, 공장에 가고, 최루탄과 맞서 싸우며, 안암골에서 여전히 호랑이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그가 청춘기에 결별한 나의 나, 세상에 두고온 '회철군'은 누구였던가.

이조때 <팔도지리>를 편찬한 바 있는 놀제 양성지의 자손으로 1934년 9월 25일 전북 장수군 계남면에서 태어난 소년 양희철은 유교적 보수성이 강한 집안에서 방랑벽이 있어 집을 비운 아버지를 대신한 백부들과 큰형님의 배려속에서 자라났다. 소년 회철은 국민학교 졸업 후 서울로 와서 휘문중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6.25를 맞았고, 의용군에 지원했으나 체구가 너무 작아 인민군대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1.4후퇴 때 혼자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은행 서울지점에서 잡부로, 정릉의 유일



특수초자공업소에서 고학을 하며 국가검정고시에 합격, 56년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한 독립심 강한 청년이었다. 휴학 중에는 학비마련을 위해 택시, 트럭을 끌기도 하다 58년 군에 입대, 1031 헌병학과 군수기지 사령부 헌병대에 들어가기도 했다. 전후의 혼란기를 거리에서 맨몸으로 부딪치며 살아온 그는 61년 3월 단국대학으로 다시 학사편입해 공부를 계속한다. 그러던 어느날 사촌 여동생 민자로부터 '어느 귀한분'이 만나자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삼각지 이층 다방에서 큰형님 양순철을 만나게 된다. 51년 전쟁때 헤어진후 꼭 10년만의 해후였다.

육남매중 맏형인 형 양순철은 고창고보를 나와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그후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선생과 일하다 해방되던 이듬해 김구와 같이 귀국한 사람으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대신한 정신적 지주였다. 이 '귀한분'의 출현은 그의 인생을 참으로 자신도 상상못할 '귀한' 것으로 역전시키게 된다.

4·19 직후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열기로 온통 들끓던 때였다. 따라서 그 시대 젊은이라면 타오르는 통일애의 열기에 감염되지 않을수 없었다. 양희철 역시 그 시기의 열혈 청년답게 이북에서는 통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싶었다. 그는 형님에게 자기

도 데리고 가기를 청했다. 형 양순철은 곤혹스러워하며 처음엔 거절했으나 결국 장항백사장에 대기중인 쾌속정에 아우를 태우고 선원 아홉명과 함께 북으로 간다.

남한 사회의 평범한 청년이었던 양희철. 그의 눈에 비친 북한 사회는 과연 어떠했을까. 그러나 북한 체류 4개월만에 소문으로만 떠돌던 남한의 5·16 군사쿠데타 소식을 듣게 되자, 북한에 좀더 머물다가 체코 유학을 가려던 생각을 접어버리고 양희철은 남쪽으로 갈길을 채비한다. 그가 받은 임무는 박정희에 대한 주변인물을 알아보고, 학원내에서의 평화통일론을 확산시키는 일이었다. 서울에 온 청년 양희철은 고려대를 기반으로 서울대 동국대 외대 경희대 중앙대 학생들과 열심히 뛰었다. 그러던중 서울문리대 불문과 학생의 밀고로 장충동 친구집에서 CIC 506 서울지대 군방첩대에 의해 대학생 27명과 함께 검거된다. 이른바, '고려대학교 지하당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육군보통군법회의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다시 2심에서는 '양희철 간첩단 사건'으로 민간재판을 받은후 65년 3월 16일 무기형으로 확정되어 그로부터 37년간의 길고 긴 옥살이가 시작되었다.

2 5029—감옥안의 양희철은 그렇게 불리워졌다. '육신과 함께 연령도 지식도 양심도 모두 영치시켜야' 하는 감옥. '주의주장이 있을수 없으며 항거란 곧 몇십배의 속박일뿐'인 그 세계. 명령과 지시와 호령과 강제에 길들여진 '내가 없는 나의 삶' '고독이 몸에 배도록 고독 그 자체가 생활'이었던 곳.

5029란 의식을 거세시키고, 고분고분한 노예가 되기를 강요하는 주문이었으며, 호령과 뺏다 방망이와 기합에 길들여지도록 하기위해 죄수의 머리통에 달아놓은 일련번호의 하나였다. 번호로 불리워짐으로써 이제 비인격화 되고 통제받기 쉬운 물화(物化)된 객체가 된것이다. 징역 초기 '니 놈 때문에 우리 양씨 집안 다 망했다'는 원망을 수도없이 들으며, 온몸이 망가져 생물학적인 소멸이 올 때까지 옥귀신이 되어야 할 그는 찢발선 눈을 부릅뜬 채, 성깔 사나운 무기수였다. '죽기밖에

더하겠나' 하는 자포자기에서 오는 독오른 기운으로 아무하고나 드잡고 싸우기도 잘하는 5029번이었다.

3 그러나, 인간의 사랑, 그것도 한 여성의 애절한 사랑이 있는 한 번호는 더이상 번호가 될수 없게 된다. 고학할 때부터, 평생 반려자라 생각하고 사귀었던 그녀는 같이 연루되어 들어와 감옥 동지가 된 김정남의 누이였다. 육군보통군법정에서 법관의 사형선고가 들리자, 순간 여인의 통곡소리가 그의 귀청을 때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로 법정은 숙연해졌다. 오빠와 연인을 함께 감옥에 둔 그녀는 하루가 멀다않고 면회를 왔다. 한갓 지푸라기 미신일지라도 잡아야했던 그녀는 여자의 첫 생리혈이 묻은 속내의를 어디서 구해왔고, 천사람의 바늘땀을 한 형짚 조각을 가지고 와 철창 안으로 들이밀며 꼭 살아야한다고 눈물짓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가 감옥안에서 먼저 죽자 이제 늙어 할비되는 날까지 까마득한 나날을 감옥안에서 살아야할 그는 언제까지나 그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둘순 없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다. 막막한 뿌연길. 5029일 뿐인 그는 한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졌다. 5029는 마침내 세상 밖의 양희철과 그녀를 함께 떠나보냈다.

꿈은 영혼이 몸을 잠시 나와 허공을 헤메는 것이란다면, 냉기 흐르는 바닥에 담요 한장 덮고 누워 그의 영혼은 그 얼마나 감시탑을 넘어, 철책을 넘어, 골목길을 돌아 수유리 장미농원을 지나, 국밥집을 지나, 그녀와 함께 걷던 장충단 길을 헤메었을 것인가.

그러나 비록 떠나 보냈으되, 만날 수는 없으되, 그래도 밖에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그 사실은 생명을 버티게 해주는 숨은 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할아버지가 된 양희철은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메어온다. 출소하던 날, 멀리 미국에서 달려온 그 처녀, 37년간 깊은 곳에 자리해 늘 서러운의 진원지였던, 이제는 남의 아내가 되어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그녀. 손자까지 있다는 머리 희끗한 노부인을 보자 터져나오는 오열을 누르고 늘 그러했던 감

정역제 방식대로 그는 '속울음' 울고 말았다.

4 5029에게 당장 절박한 것은 굶주림과 병마 그것이었다. 1975년 광주 이감 직후 난폭한 테러를 당하자 과거에 앓고있던 위궤양이 도져 몸을 추스리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그는 모기장을 쳐서 쥐를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껌질을 벗겼다. 울퉁 수치감과 자기혐오감이 솟구쳐 토할 것 같았으나 그는 먹었다. 가다밥에 늘 허기지고 휘청거리던 그의 몸은 한마리 두마리 눈에 띄는대로 부지런히 잡아먹자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거의 80마리를 먹었을까. 그후 그는 주위의 선생님들에게 이 고단백의 보신용 쥐고기를 적극적으로 보급시켰다. 쥐고기를 잡아먹지 않을수 없었던 처절한 그 한계상황. 이제 그는 거칠게 세상을 미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학대나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 만은 없었다. 시궁쥐를 먹고 몸이 추스려지자 눈에는 날선 의기가 서고, 매서운 기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85년도 전주에서 획기적으로 식사 개선하는 생존권 투쟁에서, 같이 보안과와 싸우는데. 대단했어요. 순한 소년같다가도 양희철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집요해요. 배식이 제대로 되는가, 싸울때 의지를 굽히지 않고 물고 늘어져 간수들과 교섭하는, 정말 무서웠어요"

5 5029는 언제까지나 5029로서 살 수만은 없었다. 번호가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키위해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식구통 안으로 던져진 개밥을 엮드려 주워 먹으면서도 시를 쓴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전에도 당송팔대가의 시와 <현대문학>을 즐겨 읽었던 그는 1992년 '식모시인'이라 자칭한 이행자씨와 편지로 시를 주고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나중에는 간수들과 <청이문학>이란 단행본도 같이 내놓았다. 교도일지 대역섯권에 5호 활자 크기의 시들이 뽁뽁히 기록된 그의 일기장은 바로 5029번이 양희철로서 온전히 살기 위한, 생존의 한 방편이자 존재의 안간힘이었다.

누구일까 여기/ 뉘있어 신음을 다스릴까.//뚝뚝것들 거친 횡포 맞서/ 누운채 앓고 있는/ 그 사람사람의 속앓이를// 그의 시는 신음이었고, 앓음소리였다. 단지 번호

가 내지르는 비명이 아니라, 양희철이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노트에 뽁뽁하게 기록된 시편들에는 지옥 속에서 살아온 섬세한 영혼의 실핏줄이 파아랗게 내비쳐있다.

6 86년부터 일주 한번 과일 식단이 나오기 시작하자 양희철은 복숭아씨, 배씨를 컵에 넣고 며칠간 소중하게 밟아시킨 후 교도소 담장 아래 묻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그 비밀은 조금씩 자라나 사과나무가 되어 배나무가 되어, 500개도 넘는 복숭아를 주렁주렁 달게 되면서 전설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농사짓고 씨뿌리고 가꾸는 것을 좋아한 그는 온갖 씨가 있으면 구해다 자꾸자꾸 심었다. 깨알만한 씨앗들은 화사한 꽃으로 피어나, 갇힌 수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훌륭한 감잎차가 되어 버짐핀 수인들에게 따뜻한 차가 되었고 가을이면 먹음직스런 과일이 되어 수형생활에 부족한 영양분의 공급원이 되었다. 그가 그 황폐한 죽음의 경계지대에서 심은 나무들은 바로 그 어떤 조건에서도 꽃을 피워 올리고야 마는 생명가진 것의 막을수 없는 본성이기도 했다.

그는 또 교도소에서 11마리의 고양이를 키운 회귀한 수인이기도 하다. 교도관이 새나 고양이를 키우면 징역 깨기 쉬울거라고 권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기르던 고양이가 새끼의 새끼까지 낳아 어떨때는 고양이 6마리와 0.75평에 같이 기거하기도 했다. 80마리의 시궁쥐를 잡아먹은 사람, 11마리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 이 상반된 이미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계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장기수들의 처절한 삶을 이처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

7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측사에 갇힌 측생꿀이 되고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쳐서 자유와 주체의 날개를 퍼덕였다. 학습은 그런 날기연습의 방편이기도 했다. 그는 같은방에 있던 김규호 선생으로부터(경도제대 철학을 전공한 철학교수로서 농민신문사 주필이기도 했는데, 위장이 다 망가져 4등 가다밥 세덩어리를 하루종일 소여물 씹듯 씹었고, 나중에는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특강을 듣는 행운을 얻었고 어쩌나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했는지 나중에는 마치 레코드판이 돌아가듯 줄줄 외우게 되었다. 그밖에 우주물리학, 소립자물리학 등에 몰두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한의학 공부에 온 힘을 쏟기 시작한다. 천정록의 침구경혈해설을 시작으로 해부학 생리학 유기화학 진단학 해부학등 서양의학의 기초부터 다지기 시작한 그는 한의에 관한 모든 책들을 섭렵했다. 그러던 92년 어느날, 광주로 이감을 간후 소장이 순시를 하다가 황제내경을 읽는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소장의 소개로 광주의 한의사 춘곡선생을 알게되었고 그는 한달에 두세번 면회를 와 서로의 한의학 지식을 교환했다. 소에서 한의사로서 서서히 알려지게 된 그는 92년부터 출소전까지 재소자나 직원들을 진료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5029는 '양선생'으로 불리워지게 된다.

출소후에도 그의 의술을 살리기 위해 민중탕제원과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등의 헌신적 노력과 천주교전국교정사목위원회의 주된 지원으로 99년 7월 봉천동에 <우리탕제원>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현재 안학섭, 조창순, 유한옥 선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래층에서 양희철 선생이 환자를 진단, 처방하고 있을 동안 안학섭 선생은 뜨거운 욕상에서 땀을 흘리다가 저울달아 물배합, 당제, 불조절, 자동포장기 주입 등의 일을 도맡아 역할 분담을 나누고 있고 이제 공동체로서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8 감옥문을 나선지 6개월. 산에서 한숨 자고 난 후 마을로 내려와 낯선 사람들의 낯선시간 속에서 서있는 소설 속의 '립반윙클' 처럼 그는 아직도 시공의 혼돈 속에 식은땀 흘리고 있다. 그 옛날 그가 세상에 두고온 '희철군'은 찾을수 없고, 그대신 조계사 농성장에서 수배자를 해산하라며 3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있는 한의사 양희철만이 있었다. 그는 최근 '나는 나를 찾은게 아니라 나의 실존을 잃었지 싶다'고 되뇌었다. 감옥 밖에 나와 오히려 감옥안의 5029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당황 하기도 한다.

청춘을 감옥속에서 물어버린 그의 비애는 어쩔수 없

이 요즘도 자꾸만 눈물로 분출된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꿈은 감옥이 배경이 된다. '뚜벅 뚜벅 군화발 소리에 귀를 세우고 늑대 쫓따는(간수가 철문열쇠를 여는) 금속마찰음에 가슴 철렁 떨어진다. 그리고 여전히 번호표 인간으로 불리우고 닥달하는 채근과 명령과 호통치는 소리에 덩달아 몸을 떨며 움츠린다. 길든 가막소의 오랜 습성이 내면의식을 지배하나 보다. 얼마만한 시간을 곁들여야 그 못된 습성을 떨칠수 있을까.' 몸은 감옥 밖에 나왔지만, 여전히 가위눌린 채 살고있는 양희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시 5029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목을 움츠린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四勿.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사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 예가 아니면 보지말고 듣지말며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말라)'의 뜻을 새기면서 의(義)에 바탕한 용기있는 행동을 거듭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어쩌면 그는 한번도 감옥밖의 양희철, 감옥안의 양희철로 이분되어있지 않았을지 모른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한점 현재의 순간에도 그는 엄연히 하나의 양희철이었다.

9 시인이자, 한의사이며, 간첩단 사건의 주모자였고, 헌병이었으며,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했던 66세의 청년 양희철.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죄로 젊음을 사형당한 양희철. 그는 저렇게 소년처럼 앳된 얼굴로 우리들 앞에 환히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서 혼자되는 깊은 밤이면 몸 뒤척이며 앓고 있는 것이다.

양희철, 그에게는 분단역사의 희생자니, 피해자니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詩 한 제목대로 이제 '승자로 섰다'. 이제 머지않아 그는 감옥에서의 흥망을 씻어버리고 상쾌하게 온전한 양희철이 되어 새로운 세기를 맞을 것이다. 단순히 의료인으로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의 임무-통일을 위해 앞으로 그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내세에나 있다는 지옥을 현생에서 겪고, 그 속에서도 수십개의 꽃나무를 피워낼 수 있었던 양희철. 포르노그라피같은 이 세상에서, 속진 날리는 이 어지러운 穢土에서, 그 모든 썩은 것을 거름 삼아 통일의 꽃나무 하나를 환하게 피워낼거다.

벌이의 10%는 당연하다?

박성희 · 후원회소식 편집부



이 주 정중한 팩스가 한 장 들어왔다. 이사를 했으니 주소를 고쳐달라는 이야기였다.

‘수취인 불명’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되돌아오는 소식지를 보며 소화불량을 경험하는 사람한테는 우선 반갑고 고맙고 우정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무실 벽에 붙여 놓고 보낸 사람을 찾았다. 열 줄이 채 못되는 글의 단어 사용이며 표현을 보니 보낸 사람이 문장 꽤나 읊는 사람일 것이고 못해도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체질일거라고 짐작했다. 또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찾아보면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왔다. 이들이 내는 후원회비는 늘 보통 이상이었다. 혹시 재벌가의...? 아니면 종교적 광신으로 다 쓰고 죽자는...?

“저희들의 고혈을 짜낸 돈입니다. 아이엠에프 이후에는 봉급도 많이 줄어서 예전처럼 내지도 못해요. 게다가 재은이 낳기 전에는 둘이 벌어들여 여유가 있었는데 둘이 벌다가 하나만 버니까 그나마 줄어들어서 답답해요. 핫핫.”

석은정씨가 답답하다고 말하는데 얼굴은 시원하게 웃고 있다. 물음에 대답하고 있다가 보다는 옆에 있는 신랑에게 뭔가 선언하는 김새다. 고개가 저절로 김유식씨에게

돌아갔다.

“저는 우리가 돼지처럼 사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뽀빠지게 일해 기껏 한다는 것이 우리 먹을 것, 우리 입을 것 이잖아요. 돼지도 그 정도는 하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이런데 돈이나 내고 또 그걸로 위안을 삼잖아요. 벌이의 10%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휴 10% 떼고 나면 살림이 안된다니까. 내친구 신랑은 교회에 다니는데 십일조 하고 나면 어떻게 사느냐고 맨날 싸운다더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내잖아.”

“어쨌든 지금은 우리 재은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다 시피해서 할만 한 거라구.”

“그건 그래.”

베테랑 방송작가 석은정씨가 에스비에스 아침 프로그램 <아침을 달린다> 기획회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일손이 왔다. 크고 허여멀건 얼굴에 우람한 덩치가 손등을 이마에 착 붙이고 무릎도 살짝 구부려가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일하게 된 에이디 김유식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함께 일하다가 다른 팀으로 나뉘게 되어 동료들과 이별을 기념하는 뒤풀이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오기로 한 동료가 배신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만 술을 들이키게 되었고 ‘둘이서만 먹어도 맛이 괜찮네’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일주일 동안 술을 마셔보기로 합의했다. 김유식씨는 자정야야 일이 끝나고 석은정씨는 새벽 두 시야야 일이 끝났으니 2시부터 4시까지 ‘밤을 새워’ 마셨다. 그러다 보니 결혼에 이르렀다. 결혼하자마자 김유식씨의 “돼지론”을 근거 삼아 후원할 단체를 찾았다. 민가협은 학생 때부터 많이 들었던 터라 쉽게 전화할 수 있었다. 재은이의 재물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힘을 보탬 기회를 찾고 있다.

김유식씨는 은행원들은 오후 4시 반이면 퇴근한다고 믿고 은행 입사 시험을 봤다. <카프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낮에는 경리 장부에 꼭 매여 살더라도 밤에는 글도 쓰고 인간과 시대에 대해 냉철하고 고뇌에 찬 사유를 상상했다. 학생 시절에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재기 발랄한 청춘이었는데 졸업한 뒤로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의미심장했던 은행원 시험도 떨어지고, 대학원 시험도 떨어지고, 같은 방송이라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원한 공영방송 케이비에스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타령에 애꿎은 술독만 바닥 내던 참에 에스비 에스 방송국에 합격했다. 친절환 설명 없이도 그가 토했을 감격과 다짐했을 충성이 짐작된다.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묻는다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나 그 보다 더한 것도 그 문화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문화죠. 삶이 곧 문화죠. 저는 자기와 남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류의 미래는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제 뜻대로 프로그램 연출을 하지는 못하지만 생각만은 늘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기 발랄한 청춘에서 엇기름에 잘 식힌 식혜 밥알 같은 인상을 주는 덩치 큰 아저씨로 변모한 까닭이 드러났다.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의 소망은 달력의 빨간 날짜에 쉬는 일이다. 일주일 내내 밤 새워 일해도 좋고, 월급이 뭉텅 잘려도 쉬는 날 쉴 수 있다면 좋겠다. 가족과 집에서 텅

= 굴뚝굴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 라고 8월 명동성당 캠페인 자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저는 남편을 찌그리진 천재라고 불러줘요.(웃음)”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귀여웠는데 지금은 지겨워요.(웃음) 재밌어요.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둘이서 3년, 5년씩 번갈아 벌자고 해서 당장하자고 하면 애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내빼고, 저는 방송 일은 다시 하지 않을 생각이예요. 작업 환경도 너무 힘들고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아이들 관계된 일을 할 생각이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애를 돌보거나 맡기는 기본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석은정 씨는 영남대 학보사 출신으로 일찌감치 글을 쓰기 시작했다. 대구 사투리에 밝은 사람은 눈치 채고 둔한 사람이면 알아채지 못할 말투로 이야기했다.

“졸업하면 학생 때의 운동성에서 멀어지잖아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생활하다보면 자연히 멀어지거든요. 안타까움을 많이 느껴요. <완전한 만남>이란 책을 보고 나서 비전향 장기수들을 알게 됐어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처넣어진다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의식 이전에 인간으로 받아들일

니다. 이제 재은이가 있으니까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재은이 세대들을 생각해사라도 사상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많은 신랑과 똑똑한 아내는 부부싸움도 않고 살 것 같았다.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죠.” 의연한 신랑의 발언이 나오기 무섭게 실체를 바로 알려야겠다 싶은 아내의 반격이 달려 나왔다. “날마다 싸워요. 죽이고 싶을 만치 밍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 저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 돼! 그래요.” 놀래 쳐다보는 얼굴이 안됐다 싶은지 석은정씨가 얼른 덧붙였다. “열 받는 속도가 비슷해서 금방 화해해요. 처음엔 싸울 일이 없었어요. 남들은 싸우며 산다는데 왜 우리는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 부터는 정말 지겹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싸울 때는 정말 이게 끝이구나, 아무 것도 없구나 싶은데 화해하고 나면 인생의 봄이 이런 거구나 싶게 화창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화해 한다는게 중요해요.”

마무리는 김유식씨가 했다.

“인터넷에 띄우면 저 같은 사람들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금방 알고 자기 시간에 맞춰 참여 할 수도 있고, 소식지도 띄우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도 같이 하면서 마음을 나눠야 하는데 돈만 내고 바쁘다는 핑계에 회원이 할 바를 못해서 미안하죠.”

그 식구들은 마지막까지 발랄했다.

“우리한테서 무슨 쓸거리가 나오겠어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구. (턱짓으로)그런저 사람이 걱정할 문제라구.”

방송 화면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무척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생생한 현장감을 주기 위해 손짓 발짓 얼굴 색까지 바꾸는 것이 분명 보통이 아니었다. 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송 일을 선택한 이유와 은행원을 선망한 까닭을 걱정하고 얘기해준 것이 참 고맙다. 뒤에 거나한 뒤통이 자리 때는 꼭 알려줄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다. 빈말일지언정 입맛을 췌췌 다셔가며 약속했다. 다시 만나면, 암전할 수 밖에 없는 잠든 돌바기 여자 아기 김재은을 보고 암전하다고 왜 그토록 여러 번 말했는지를 귀뜸해 주고 싶다. 갑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두려우랴, 출정하여라!

송창학 · 37세, 회사원

여보세요, 후원회죠? 수련회에 참석하려고요. 네! 청량리역에서 오후 3시에 만나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죠? 그냥 느낌으로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느낌 좋은 전화의 여운 끝에 10여년만에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 서있는 나.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만났다 어디론가 떠나가는 모습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풍경을 연출하지만 내 옆에는 스스로 예쁘다고 착각하는 두 여인(마누라와 이웃집 여인)과 아들녀석이 나와 함께 서있는 것이 예의 그때와 다를 뿐이다. 이윽고 후원회 프랑카드를 찾아 간사님께 관등성명을 대고 수련회의 첫 입문절차를 마쳤다.

두 시간여의 여정 끝에 도착한 두밀분교의 첫인상은 실망이었다. 몇 년전 연일 매스컴에서 폐교문제로 찬반이 엇갈리던 시골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일까! 아름다운 나무에 둘러싸인 아담한 교정과 정감어린 낡은 교사를 생각했던 나로서는 협소한 교정과 인위적으로 민박집 같이 개조한 교사를 보면서 언론매체를 대하며 스스로 상상속에서 만들어낸 관념과 현실의 차이를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온다.

이미 1차로 오전에 오신 민가협 어머니들, 장기수 선생님과 반가이 인사하고 저녁식사를 마친후 제비뽑기로 조를 편성하였다. 가족들도 흠어져야 한다는 입소문을 들었지만 대부대(7명)를 이끌고 온 나로서는 통솔의 어려움(어린이 4명)이 있어 수차례의 난관을 극복하고 6조에 잔류하게 되었다. 모두 8개조로 편성되었는데 1조는 전원 선생님과 어머니들로 구성된 경로당(?)조였고 대부분의 조들도 편중된 자원으로 구성된 반면 우리 조는 남녀노소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었고 조장님의 추진력과 기발한 춤꾼 류정호 학생, 분위기 메이커이신 함세환 선생님과 모든 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별 장기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에 조별구호, 노래, 장기 등을 준비하여 동작들이 서툴고 우스웠지만 최선을 다하는 참석자들의 모습을 보며 1등의 기쁨보다는 모두에게 뜨거운 동지애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 느낌이 너무 진했을까? 운동장에서 엄숙히 치루어진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삼삼오오 막걸리잔을 돌리던 그 시간, 한켠에선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으니 비밀리 들리던 5년산 술이주가 바닥을 드러내
자 술기운으로 무장한 몇몇 불순분자에 의해 강당이 점
거돼 있고 노래와 춤으로 이어지는 광란(?)의 시간이 새
벽 5시까지 벌어졌는데 가담자들의 안녕을 위해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물론 그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진지한 대
화들이 오갔으며 이러한 사고의 유연함이 온갖 어려움
을 뚫고 나가는 우리의 저력이 아닐까, 새삼 수련회의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이렇게 수련회의 첫날 밤은 뿌영
계 안개진 새벽과 자리를 바꾸고 있었다.

불이야! 하는 함성(우리를 깨우기 위
해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신 작품이었으며 신문
지에 불을 붙인 실제 상황이었음)에 감기는 눈
을 억지로 치켜뜨며 오전 일과가 시작되었다.
가벼운 산책 뒤 서경원 전 의원님의 건강체조
특강이 있었는데 이는 장난이 아니었다. 실제
로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게 여실히 증명되
는 한시간이었다. 어쨌든 적은 수면에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아침 식사후 예정
에 없던 즉석 토론회가 마련되었고 노련하신
우리 연사님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조국통일
방안등 무거운 주제들임에도 중복됨이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더기 박수를 받
았다. 평소 고민이 없었다면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번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인 퀴즈잔치는 200백만원
상당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사회자의 뽐
(?) 속에서 시작되었다. 땡벌아래서도 모든 참가자들의
참여열기가 돋보인 시간이었다. 한편 죄는 반드시 대가
를 치룬다고 하던가? 실제로는 안그러는 족속들도 있지

만!) 이 자리에서 어제밤 강당을 불법점거하였던 일당
들이 사회자에 의해 모두 불려나와 잠시 당시의 상황을
노래와 춤으로 재현한 뒤 엄중한(?) 꾸지람을 듣고 들어
갔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회자 송록희씨
는 어떻게 그리 소상하게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까(혹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마음놓고 웃을 수 있
었던 유쾌한 시간이었다.

귀경시에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 묘지에
들려 열사들의 묘소앞에서 수련회로 잠시 풀렸던 마음



들을 새로이 다잡는 시간을 갖고 공식적인 99 민가협 ·
양심수후원회 수련회 일정을 마쳤다. 나는 처음 참석한
수련회라 처음에는 약간 위축된 마음이었으나 모든 분
들이 마음을 열고 대해 주셨고 무언의 동지애를 느끼면
서 앞으로 내 생활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운 귀중
한 시간이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
원하며 그들을 위해 노래 한 구절로 마무리한다. "무엇
이 두려우랴, 출정하여라!"

그해 여름에 만났던 사람들

곽인석 · 학원강사

1999년 8월 28
일, 오후 3시.

청량리역 광장 시계
탑 앞에는 하이얀 모시
적삼의 구순 할머니와
엄마, 아빠의 손을 나온
개구쟁이들이 만났다.
통일과 자유도, 진리와
양심, 정의와 사랑도 모
였다.



‘오늘 만큼은 투
쟁의 재충전을 위
해 가슴을 열고 신
명나게 자유를 외
쳐보자’는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
회 회장님의 수련
회 입소 선언으로
우리는 모두 다시
하나가 되었다.

무더위가 가시지는 않았지만 늦여름의
하늘은 맑았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묘향산 원족(遠足)
대신 아직은 가평 두밀리수련원(옛 두밀분교)으로 향했
다. 어느 피서나 수련회를 떠날 때에는 달리 반가움 속
에 얼굴을 한분 한분 확인할 때마다 벅차오름과 잔잔할
수 없는 감동의 분위기로 얼싸안았다.

30~40년 넘도록 영어의 몸으로 동료들의 시신이 밖
으로 실려나가는 것을 심장 터지게 바라보시면서 육고
끝에 이제, 반쪽이나마 조국의 산하를 품으신 장기수
선생님들. 한집안의 희망이었던 아들, 딸이 민주와 통
일을 외친 죄로 하루 한날 다리 뻗고 잠을 청하시지 못
한 민가협 어머니들. 어느새 그 분들은 민주 투사가 되
신 것이다. 금번 8·15에 풀려나신 류락진 선생님과 청
년들도 다시 합세했다. 그 고난과 희망에 함께 하고자
작디 작은 마음을 모았던 회원들도 함께. 통일합창 단
원을 실은 버스는 북한강을 오른쪽으로 끼고 경춘가도
를 달려 저녁무렵 푸르른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두밀리
캠프에 도착했다. 몇 년전 두밀분교 폐교에 맞섰던 분
들의 뜻이 배어있는 곳이었다.

저녁식사 배식 시간에 선생님들, 어머니들과 가족들
이 줄지어 서 계신 모습이 어찌 그리 정겹고 콧등이 시
려오던가. 이곳이 진정 해방촌이요, 통일조국일진대 아
직도 사팔뜨기가 된 눈들은 산을 산으로 강을 강으로,
동족을 동족으로 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또 얼마만
한 세월을 바보스럽게 홀려보내야 한단 말인가. 밤늦도
록 8개 분임조로 나뉜 150여명의 식구들이 통일 노래와
해방의 춤을 추었다.

대구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각처에서 올라오신
어머니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회원들이 한데 어울려 시
려오는 아픔을 풀었다. 마지막 8조 경연때 신인영 선생
님의 모친이신 구순의 고봉희 할머니께서 광주 민가협
어머니 등에 업혀 나오셔서 손을 흔드시며 함께 어우러
지던 모습을 어느 시인이 읊어 댈 수 있을까?

당신도 병으로 몸이 불편하신데 꿈에 그리던 어머니
의 손가방을 대신 들고 구순의 어머님을 부축하시던 칠
순을 넘긴 노(老) 아들의 모습은 전설의 바위에 현실의
역사가 통일 조국으로 불박하고 있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 가는지 새워오는지 뿔뿔 타오르는 장작불 둘레로

어깨동실 대동제가 어우러졌다. 반민족적 군상들, 분단 고착화의 현안들, 군사독재의 망령들... 모두 사르고 통일의 축복 속에 평등 세상이 마음껏 펼쳐지는 신명나는 한 판이었다. '가라 가라 꺾테기는 가라/새로운 천년 조국에는 알맹이만 남고 꺾테기는 가라' (신동엽 시인도 고개를 끄덕이셨으리라.)

신새벽의 공기는 우리를 아늑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건강 체조를 전파하시는 서경원 의원의



시범을 곁들인 강의는 사뭇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선생님들의 몸은 통일의 완성을 맛보셔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으니 몸을 건강히 잘 보전하셔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실 때는 비감에 젖게 하였다. 오전에 벌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시간은 그야말로 통일마당이었다. 며칠 전에 풀려나신 류낙진 선생님은 민족민주 통일진영의 대동단결을 역설하셨다. 민가협 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행진은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지난 2·25 출소, 과천 한백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정신대 할머니들을 비롯 침술 봉사활동을 펴고 계신 안영기 선생님은 국가보안법 철폐의 절대적 당위성을 설파하셨다. 이어 이기욱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후원회 현황도 보고되었다. 모두들 결의를 다지는 중에 임기란 어머님께서 오늘의 수련회가 민가협이 해체되고 민가협 동문회로 개칭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모두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박

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맛있는 닭죽으로 점심을 배불리 하였지만 아쉬운 헤어짐과 기약의 시간이 다가왔다. 떠나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뒤바뀌면서 두 대의 버스는 길을 떠났다. 오는 길에 모란 민주 열사 묘역에 들려 문익환 목사님,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김귀정 열사... 능에 참배하였다.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묘역을 둘러보시면서 감옥 안에서만 들었던 이름들을 처음으로 확인하실 때마다 짓던 표정을 조국의 하늘과 산천은 보고 있었다.

그날은 분명 통일 여행 연습의 날이었나 보다. 집에 돌아와서 모든 피곤을 뒤로 한 채 바빠 TV를 켜고 남북 노동자들의 멋진 축구 시합을 즐겼으니... 아무쪼록 남과 북이 어우러져 옛 추억처럼 이 순간들의 역사를 되새김하는 그 날을 기다려 보며 어머니들과 연로하신 선생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9월 산행



프킵던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어느덧 열매 맺고 있는 가을입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거뒀돌이는 가을을 맞이해봅시다.

언제

1999년 9월 19일(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디로

북한산(평창동 - 일선사 - 대성문 - 대동문 - 우이동)

모이는 곳

평창동 북악파크 앞마당
(버스 135번, 135-1번, 8번 올림픽아호텔앞에서 내림)

조국의 어머니

김수룡

조국의 어머니를 봤다
투쟁의 어머니를 봤다
민가협 어머니를 봤다

용감한 어머니의
“이 놈들아 내 아들 내 놓아라”
소리 높여 외치는 조국의 어머니를 봤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부정이 있는 곳은
어디라도 달려가서
조국의 어머니는 투쟁을 한다

검찰소 앞에서
경찰서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감옥문 앞에서
철문을 두드리다가
지쳐 쓰러져도
길바닥에 누워 농성을 한다
조국의 용감한
투쟁하는 어머니를 봤다

내자식 네 자식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보안법의 올가미에 걸린 아들을 구하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두주먹을 쥐고 외치는
조국의 장한 어머니를 봤다

나는
저 더러운 칼바람 앞에
긴 긴 세월
말문을 닫고 있다가
조국의 어머니의
소리높이 외쳐대는 구호 소리에
나도 일어서서
구호를 외친다.

이 시는 김수룡 선생님께서
어머니들과 수련회를 다녀와서 쓰신 것입니다.

3.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5명이 부산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부산구치소 교도관들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확인. 법무부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공문발송.

• • 나카키타 류타로 변호사(제3세계민중포럼 대표), 이시이 히로시(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연합 사무국장), 사카타 미치코(반전평화인권운동가) 등 일본인 3명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이 단체 등 4개 제일한국인 단체가 결성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요구 서명운동 제일 한국인 추진위원회'가 서명받은 5만명 서명부를 청와대에 제출

5. • 99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 첫째날(명동성당). 캠페인선포식 '인권회복으로 새천년을 열고자 하는 99인 선언' '하루감옥체험' 민가협 291회 목요집회.

6. • 99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 둘째날(명동성당). '하루감옥체험' '99 인권우드 스타'.

• • 국가정보원, 황혜로(연세대 4년) 학생이 지난 6월 1일 평양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한총련 의장 윤기진(명지대) 학생과 조통위원장 이동진(경상대)학생에 대해 수사중이라 발표

7. • 99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캠페인 셋째날(명동성당). '하루감옥체험' '여섯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민가요제'

• • 5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했던 나창순(범민련 고문), 서원철(청년대표), 전국연합 이성우, 강현구, 박기수 대표 등 5명이 7일 오후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

8.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 · 10

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일~16일까지 열리는 99통일대축전과 10차 범민족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 촉구

•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통일대축전 · 10차 범민족대회 서울지역 추진본부 결성식 및 통일한마당' (건국대)

9. • 민가협, 참여연대 등 시민 · 사회단체, 김현철 사면 반대 기자회견. 대표단 청와대 민정수석 만나 항의문 전달. 민가협 회원들 청와대 입구에서 항의농성

• • 베이징 민족대토론회 마치고 돌아온 전국연합, 범민련 대표단 구로보안수사대 연행. 이에 항의하여 구로경찰서 앞 규탄집회.

10. • 정치수배자 가족(수가협), 청와대 앞 항의농성하다 은평경찰서로 연행, 민가협 회원들 함께 달려가 은평경찰서장 사과 받고 모두 풀려남

• • 민변(회장 최영도),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 ·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특별사면을 하기 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사면법에 신설할 것을 국회에 입법청원

• • 영등포경찰서, 방송사 노조 파업 때 뉴스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현상윤씨와 부위원장 김수태씨 조합원 한명 부씨를 체포

11. • 민가협, 수가협 회원 '김현철 사면 반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 해제 촉구집회' (세종로 정부청사 뒤)

12. • 민가협,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25개 사회단체 '김현철 사면 반대,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참여연대 사무실). 임기란, 이창복, 정연오, 권오현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항의문 전달

• • 민가협 293회 목요집회. 정치수배 해제 촉구연설(김현곤 학생 어머니), 민경우(97년 구속)씨 부인 김혜정 님의 석방호소, 한총련 학생들과 내

아들을 석방하라 연설(정명기 4기 한총련 의장 아버지 정연호 님). 신인가수 오지총이 힘찬 노래로 함께 함.

- • 1989년 민족해방 결개그림 작가 홍성담씨 '1999탈옥전'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참관
- • '국가보안법 여성피해자대회' (전국연합 여성국 주관)

13. • 민가협, 수가협 등 '양심수 사면 기만성 규탄집회' (세종로 정부청사 뒤)

- • 법무장관 8·15 광복절 경축사면 발표. 양심수 56명에 대한 가석방, 집행유예 1,012명에 대한 사면·복권, 2명 감형.

- • 사당의원 순회진료반 들려 최남규 선생님 1주 2, 3회 진료해 줄 것 등 의뢰하고 그간 진료에 대해 감사

-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통일대축전·10차범민족대회' (서울대 노천극장). '통일선봉대 환영식'에 이어 전야제 행사 치름. 시민, 학생, 청년 등 6000여명 함께

- • 민변(회장 최영도), 준법서약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양심수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한총련의장 정명기씨 등 26명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낸다.

14. • 10차 범민족대회 2일째. 당면과제 주제별 강의에서 권오현 회장 국가보안법철폐 강의

15. • 광복절 경축특별사면. 민가협 각 교도소 나누어 마중가다.

- •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성모(71세, 19년째 복역) 선생과 정명기 학생 면회

- • 국민회의, 김대통령의 8·15경축사 후속대책으로 국보법 개정방침 아래 '불고지죄'와 '찬양·고

무죄'를 없앨 예정이라고 임채정 정책위원장 밝힘

- • 10차 범민족대회 출정식을 갖고 관문점으로 향하려던 학생, 시민 등 400여명 경찰에 연행

16. • 8·15연행 구속자 전원석방과 민간통일운동 탄압 규탄집회 열림(명동성당/전국연합 민주노총 민가협 범민련 자통협 등)

- • 8·15연행과 관련, 임기란 권오현 이천재 정연호 등을 대표로 하여 경찰청 항의방문, 정보4과장 면담해 석방촉구

- •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된 박종화씨 면회

- • 양심수후원회 감사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옥인동 분실)로 연행됨

17. • 8·15연행 구속자 전원석방과 민간통일운동 탄압 규탄집회(명동성당)

- • 범민족대회 관련 사전영장 발부자(김양무, 박창균, 문제룡)와 강희남 의장 등 범민련 간부 명동성당에 농성 돌입

- • 민가협 어머니들, 옥인동 보안수사대로 진관스님 연행 항의하고 면회

- • 용정모임 다녀온 일로 구속된 김규철 후원회 감사(민자통 상임의장), 박세길 전국연합 편집위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18. • 서대문경찰서로 진관스님 면회

- • 민가협과 전국연합 등 8·15 행사 관련 구속자 석방 촉구집회(경찰청 앞).

-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 한총련 대의원활동을 한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집유2년을 받은 관동대 동아리연합회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 확인

19. • 민가협 294회 목요집회. 권오현 후원회회장이

8.15사면에서 제외된 장기수 손성모, 신광수 석방 촉구 연설, 강위원 5기 한총련 의장 어머니의 학생 석방 촉구 연설, 정치수배해제 촉구 연설(수배자 신동훈씨 어머니 발표). 8.15 특사에서 풀려난 이화춘, 안재구, 민경우, 조덕원, 노윤조, 이정은, 김창학, 김승원, 정옥재, 이의철, 김우현, 김동석, 장전섭, 라성진, 최진선, 김은희, 윤영준, 이환영, 문명주, 박종호, 이의철 등이 함께 했으며 서울지역 율동패협회의회의 힘찬 울동이 있었다.

- 서울지검, 범민족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진관스님(양심수후원회 감사, 불교인권위원회 대표)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국가정보원, 80년대 <강철시리즈> 저자였던 김영환씨와 전 <말>지 기자 조유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20 • '8·15행사 구속자 석방 촉구 및 민간통일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 (경찰청 앞)

- 양심수후원회 8월 운영위원회. 새로 이사한 이기욱 변호사(부회장) 사무실에서 갖다. 8·15행사와 연행, 구속사태 대응과 여름 수련회 등 협의

-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 이른바 '반미구국한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동수씨등 4명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면부인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제시

21 • 민가협 어머니들, 한나라당사에 들어가 정부의 국보법 개정의견에 색깔론을 들고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



이다.

23 • 민가협, 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등 '국보법 개폐문제에 색깔론 내세우는 한나라당 규탄 및 국보법철폐 촉구대회' 갖다.

- 8·15에 풀려난 석방자들,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갖고 준법서약 폐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폐지, 양심수 전원석방 등 촉구.

- 국가정보원, 하영옥(서울대 법대 82학번), 심재춘(대학강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말> 9월호를 5명의 양심수에게 발송

24 • 국가보안법 철폐촉구집회(여의도 장기은행앞/ 국가보안법철폐 범국민 행동연대' 주최, 민주노동주관). 국보법철폐 촉구서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에 전달

- 명동성당으로 범민련 농성장 격려방문

25 • 국가보안법 철폐좌담회('민족민주열사추모(기념)사업연대회의' 주관/백승헌변호사, 오병윤 전국연합, 이재근, 권오현 회장이 토론자, 사회 김학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공동대표 김영진 신부),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 발표

26 • 민가협 295회 목요일집회. 범민련 탄압 중단하고 진관스님 석방하라(연설/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반미구국한양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되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한양대 학생들의 출소인사, 8월 15일 특사로 풀려난 최호경(민애전 사건, 92년 구속)씨 출소인사, 권오현 회장의 국가보안법 철폐연설. 강위원 학생(경주교도소 수감중)이 보낸 편지를 조순덕 어머니가 낭송, 산업대 율동패의 힘찬 울동으로 마무리.

-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 주

관, 진관스님 구속에 대한 불교계 입장 기자회견 (조계사 총무원).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항의 집회 열다.

27.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양심수군 문제해결을 촉구 연합집회' 4개단체 공동(세종로 종합청사뒤).

28~29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가 함께하는 '99회원 여름 수련모임' 이 민가협 어머니들과 후원회원 출소한 장기수 선생님들 모두 150여명이 함께하여 가평군 옛 '두밀분교' 에서 이틀동안 열리다. 첫날 여는마당, 8·15 석방양심수 환영, 조별 겨루기, 대동놀이, 둘째날은 서경원 전의원의 지도하는 기체조를 시작으로 인권 등 당면과제 자유토론회, 작은 올림픽, 물놀이를 하고 닫는마당에서 평가와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을 참배.

29. • 진보정당을 추진하려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지식인 등 2000여명이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칭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양연수, 이갑용)를 출범시키다.

30. • 민가협 회원들과 서울대생 등, 국가정보원 앞에서 김영환씨 등 4명의 구속과 고문행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짐



31. • 민가협 회원들과 서울대생 등, 국정원 앞에서 '김영환씨등 4명의 구속과 고문행위 규탄집회' 를 가짐
• 사당의원으로 최남규 선생님 문병.

• 북 적십자회 장재언위원장이 비전향장기수로 (전쟁포로) 원적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인서 (73) 노인의 송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남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밝힘

• 민변, 29일 국정원이 김영환씨에 대한 진료신청을 거절하고 접견도중 김영환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접견을 방해한 일과 관련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변호인접견 불허처분과 수진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내다.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간부훈련을 위해 마련한 '민족간부학교' 에 권오현회장이 민주주의, 인권 등 내용으로 하는 강의를 하였음

• 미결 양심수 131명에게 영치금 보냄
• 양심수 가족돕기 성금을 울산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 가족들에게 드림

• 낙성대, 갈현동 만남의 집과 과천 한백의 집, 무연고 출소장기수 선생님들에게 생활지원금 드림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신동욱(서울시 충무로5가)

김창수(서울시 공릉동)

이동림(경기도 고양시)

선생님소식

- 우리탕제원에 계신 조창손 선생님께서 위장질환 등으로 식사를 잘 못하시면서 기력이 너무 떨어져 31일 사당의원 402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 계신 최남규 선생님께서 기력이 몹시 떨어져 31일 밤 사당의원 백인미 순회진료팀 원장님 배려로 303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이틀만에 코에 호스를 넣어 음식물을

위에 주입할 수 있게 되어 9월 3일 현재 기력이 조금 회복증상을 보이고 눈을 뜨시고 사람을 어렵듯이 알아보십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우리탕제원, 갈현동 만남의 집 등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에 컴퓨터, 팩스를 기증하실 분을 찾습니다. 이정태 회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7-281-5500)

회원소식

- 서재철 회원이 월간 <말>에 기고한 후 원고료를 성금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회원은 녹색연합 생태보전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곳곳을 누비며 생태보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정태 회원이 24반무예 경당(서울수련장)의 관장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심신수련에 관심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493-1952)
- 움시롱·감시롱은 21일, '우리탕제원' 선생님들을 찾아 뵙고 정기모임을 하면서 가을기행 등

을 협의했습니다.

- 미국워싱턴수도장로교회(조명철 목사)에서 성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랜 성원을 이어 주시는 조명철 목사님과 교회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성규 회원이 강남구 도곡동에 '제일 카센타'(3호선 매봉역에서 양재천 쪽 200미터 지점)를 개업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578-0603).

북녘동포돕기 성금

북녘동포돕기 성금을 보내주신분
(1999.5.10. ~ 8.31.)

염승한 외 19명 32,760
김병철(5,6,7,8월) 40,000
한희숙(5,6,7,8월) 10,000
권오현(5,6,8월) 300,000

북녘동포 돕기 성금계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제일은행 159-10-001411
예금주: 권오현양심수후원회

출소장기수 머물 곳 마련 성금

출소장기수 머물 곳 마련 성금을 보내주신 분
(1999.5.31. ~ 8.31.)

김기수 지명순 100,000
한희숙 100,000 조영산 10,000
남충진 300,000 조영산 10,000
조영산 10,000

출소장기수 선생님 머물 곳 마련사업에
정성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일은행 159-55-001877 / 예금주: 권오현